

심포지엄 참관기

The Report of the 39th Korea-Japan Professional Engineer Sympos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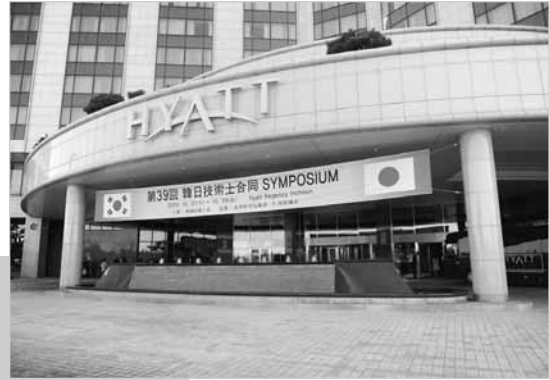
총괄 참관기



글 | 金斗煥
(Kim, Du Hwan)

항공안전기술사
한국안전기술건설연구원 원장

E-mail : kdh860@hanmail.net



▲ 하얏트 리젠시 인천

매년 한일 기술사들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는 합동 심포지엄이 양국을 오가며 열린지 올해가 벌써 39회로 접어들었다.

올해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한국에서 2009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국의 신공항 하얏트 리젠시호텔 2층 볼룸홀에서 열렸다. 10월 7일에는 하얏트 리젠시호텔 및 프리미어 인천공항 호텔 버스로 이동하여 호텔에 여장을 푼 후 오후 2시 30분 로비에 모여 버스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용축구장에 도착하여 한일 양국 기술사 회장 및 교류 준비위원장의 격려하에 시축후 친선축구경기가 진행되어 4시 30분경에 끝난 후 호텔에 돌아왔다.

한일여성기술사들 19명은 7일 오후 2시 50분 하얏트 리젠시호텔 2층에서 한일여성기술사 경쟁력 강화 심포지엄 회의장으로 이동 양국 여성 기술사 회장의 격려사가 있는 후 양국 여성발표자의 발표 및 질의로 진행되었다.

10월 8일 아침 8시부터 회의장 로비에는 양국 기술사회 사무국 직원들 및 한일기술사 교류위원들의 안내로 한일양국회원들의 등록이 시작되

어 명찰, 기념품, 회의자료집, 양국 참가자 명단 등을 배포하였다. 한국기술사측 257명과 일본기술사측 102명 총 359여명이 동시 통역장비를 배부받아 회의장에 착석하였다.

오전 9시부터 김상구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한일기술사 합동심포지엄 개회가 있은후 이정만 한국기술사 회장의 환영인사 및 다카하시 오사무 일본 기술사 회장의 답사가 있었고, 이창구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의 축사를 한 후 감사패를 기술사회장이 주었다. 박경부 한국기술사 교류위원장 및 일본기술사회 나카야마 위원장의 기조보고가 있는 후 9시 45분부터 한일 양국 주제 발표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한국 측의 이강건 도시계획 기술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기술사의 역할' 로 10시 45분까지 차분하면서 간단명료하게 PPT로 각국의 저탄소 감소방안 실제 사례를 폭넓게 발표하였다.

제2주제는 10시 55분부터 일본측의 이치무라 카즈시 기술사의 '저탄소 사회를 목표로한 녹색성장전략과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일본은 2020년 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감축하고 2050년까지 60%로 감축한다고 국제공약을 했고, 이를 위한 기본방침 실행계획을 입안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양국 기술사들이 동반한 부인들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호텔을 출발하여 강화도 유적지 관광이 있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도시락으로 점심이 제공되었고 오후 1시 30분부터 5개 전문분과별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그 이후에 제1분과부터 제5분과까지 분과별 발표가 이어졌다.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각 분과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모두 끝난 후 30분간 휴식 후 6시 45분부터 하얏트 리젠시 볼룸 B와 C 만찬장입구까지 양편으로 한국기술사들 200여명이 늘어 서서 입장하는 일본기술사회 회장단 및 기술사 부인들의 입장을 환영했고, 뒤이어 한국기술사회 회장단 및 부인들과 기술사들이 입장하여 정해진 좌석에 착석하였다.

내빈 소개 및 한일 양국 기술사 회장의 인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대신하여 정일용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의 축사와 오이케 아쓰유키(尾池 厚之) 주한일본경제공사 축사 등이 있었다.

일본측 기술사의 나카니시 토시미(中西 利美, NAKANJSHI, Toshimi) 기술사, 이토 테쥬(伊藤 徹, ITO, Tetsu) 기술사 아쓰미 주니치(渥美 純一, ATSUMI, Junichi) 部長 3명에게 한일기술사심포지움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한국기술사회 회장의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한일 친선 축구대회는 한국이 3:1로 단체 우승컵을 받았고 양국 개인 MVP의 한국기술사회 축구단 이봉태 기술사와 일본기술사회 축구단 에가와 이치로(江川 千洋, EGAWA, Chihiro) 기술사에게 사상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기술사회 회장은 한일공동 심포지움을 인천에 유치 및 지원에 기여한 인천직할시의 김진영 도시계획국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 만찬장에서의 건배

8시부터 민속공연 가야금연주를 시작으로 만찬 향연이 베풀어져 한일기술사들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고 차기 개최지인 일본 시모노세키 시의 소개가 일본시모노세키 출신 기술사들에 의해 있었다. 그리하여 한일양국 부인 합창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다. 10월 9일에는 산업시찰로 아침 9시에 신공항 하얏트리젠시 호텔을 출발하여 버스 2대가 세계에서 7번째 긴 교량인 인천대교 건설현장을 견학하고 처음 통과하여 양쪽의 바다절경을 구경하며 인천세계도시축전장인 송도 행사장에 도착하여 관람 후 점심은 포장마차 집에서 빈대떡과 막걸리, 국수로 1시간을 즐긴 후 최첨단 미래도시관을 방문하여 홍보영화 및 미래인천 도시형상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강당에서 인천제철 주식회사의 현재 미래비전 홍보영상을 관람 후 폐철을 용융하여 H빔 제작과정을 참관한 뒤 4시 30분에 호텔로 복귀하여 휴식 후 신공항도시 명품관에서 마지막 날의 저녁만찬을 양국기술사들이 즐기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10월 10일 8시 일본측 기술사들이 출국하고 한국 기술사 및 준비위원들이 해산했다. 제39회 한일기술사 합동심포지움은 무사히 끝을 맺도록 노력한 사무총장 및 사무국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원고접수일 2009년 11월 17일〉